

# COME & SEE

##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즐겁게 안식할 날(찬57/새43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지학 집사 2부/백영만 장로 3부/변진 집사 4부/나승호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는 백합화요(Michael Barrett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요한복음(John) 3:22-36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8:12-20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공예(5) 축소의 계절이 찾아올 때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29) "I AM" 세상의 빛이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시트콤 <우당탕탕 어바인 생활>

Sitcom <Topsy-Turvy Irvine Lif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22년 전에 개봉된 덴젤 워싱턴 주연의 <Man on Fire>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John Q>에서 덴젤 워싱턴의 연기력에 매료되어 그 후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는 찾아보는 편인데, 다음 주 수요말씀여행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덴젤 워싱턴은 특전사 출신으로 알콜 문제로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다가, 부유한 집안의 딸 피타의 보디가드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갱단들에 의해 피타는 납치되고, 보디가드 덴젤이 갱단들을 소탕하면서, 자기가 책임진 소녀 피타를 결국 구해내는 박진감 있는 액션 영화입니다. 좀 잔인한 장면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소녀를 구해내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과 교환하자는 갱단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미 총에 맞아 많은 출혈이 있던 덴젤 워싱턴은 동의를 하고, 자기 목숨과 소녀 피타를 맞바꿉니다. 엄마의 품에 돌아와 안정을 찾는 피타와 갱단의 차 뒤에서, 결국 큰 출혈로 숨이 멎는 주인공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이때 한참 총 싸움 하던 어두운 영화 분위기에 선명한 빛줄기가 조명하듯 밝아집니다. 관객들이 여기저기 눈물을 적시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슬픔과 더불어 원지 모르지만 물밀듯 밀려오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이 물려올까요? 저는 주저함 없이 그 안에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소녀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원리는 항상 감동을 자아냅니다. 제가 왜 수요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화가 생각났을까요? "예수, 우리의 대속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적절한 예가 영화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화에는 감동의 구성(plot)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감독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감동의 구성은 복음의 원리를 닮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 저의 목회 40년+동안 실제로 겪은 성도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보려고 합니다. <순풍 산부인과> 같은 시트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그리고 회생과 눈물과 헌신의 감동 스토리를 시트콤으로 넷플릭스에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에 기독교 교인이나, 목회자를 신비주의에 빠진 이상한 이단이나, 사기꾼으로 폄하하는 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교회 하면 '싸움터'로 생각하는 속된 인식을 바꾸어, 가장 따뜻한 삶의 현장, 연약한 자들이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눈물겨운 이야기들,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한 간증들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월튼네 사람들> 같이 따뜻하고 <응답하라 1988>처럼 재밌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감동 있는 <우당탕탕 어바인 생활> 시청률 신기록을 세우며 상영될 날을 기대합니다.

There is a movie called <Man on Fire>, starring Denzel Washington, which was released 22 years ago. Ever since I was captivated by Denzel Washington's acting in the movie <John Q>, I have tended to seek out his movies. While preparing next week's message for Wednesday Word Journey, this movie came to my mind. The main character, played by Denzel Washington, is a former Special Forces soldier who retired due to alcoholism and was living quietly before taking a job as a bodyguard for Pita, the daughter of a wealthy family. However, Pita is kidnapped by a gang, and the film becomes an action thriller where Denzel wipes out the gang to ultimately rescue the young girl he was responsible for. Although there are some brutal scenes, the final way to save the girl was accepting the gang's proposal to exchange his own life for hers. Denzel Washington, who had already been shot and suffered heavy blood loss, agrees to trade his life for the young girl, Pita. The scene overlaps showing Pita returning to her mother's arms to find safety, while behind the gang's car, the main character takes his last breath due to severe blood loss. At that moment, a vivid beam of light shines down like a spotlight, brightening the dark movie atmosphere filled with intense gunfire. Audiences can be heard tearing up and weeping here and there. Along with sadness, a surge of profound emotion washes over everyone.

Why does such deep emotion surge during the scene where the main character dies? Without hesitation, I can say it is because the principle of the Gospel is hidden within it. The act of laying down one's life to save the girl's life precisely reminds us of the grace of the Cross. Even for people who do not know the Gospel or understand what the Cross is, the principle of the Gospel always evokes deep emotion. Why did I think of this movie while preparing for the Wednesday's message? Because the movie contained a perfectly fitting example to explain "Jesus, Our Ransom".

Every movie hides a narrative plot designed to move hearts. Whether the director intended it or not, the structure of moving people resembles the principles of the Gospel. After I retire, I plan to write scenarios based on the heartwarming stories of church members that I have personally witnessed over my 40+ years of ministry. I want to create a sitcom—like <Soonpoong Clinic>—that captures the many fun episodes that take place inside the church, along with touching stories of sacrifice, tears, and devotion, and upload it to Netflix. I have always felt regretful seeing Christians or pastors portrayed in movies and dramas as strange cultists trapped in mysticism, or as scammers. I want to change the worldly perception of the church being seen as a 'battleground,' and instead write about the most heartwarming grounds of real life—moving stories of the weak rising again through faith, and testimonies of experiencing miracles in impossible situations.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opsy-Turvy Irvine Life>—warm like <The Waltons> that I watched in my youth, fun like <Reply 1988>, and touching like <Hospital Playlist>—will air and set new viewership records.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축소의 계절이 찾아올 때

(요한복음 3:22-36)

1.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 뒤로 물러나야 하는 '축소의 계절'을 맞아 씁쓸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나눠 봅시다.(25-26절)

적용하기



2. 누구에게나 축소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에서 영적 성숙함을 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1)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참고/요 1:21, 창 50:20)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_\_\_\_\_ 받을 수 없느니라(27절)

2)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아는 지혜

내가 말한 바 나는 \_\_\_\_\_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28절)

- 세례 요한이 29절에 결혼식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십시오(29절)

3)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지혜

- ...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_\_\_\_\_ 계시나니(31절)

-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_\_\_\_\_ 손에 주셨으니(35절)

3. 축소의 계절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던 중심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옮겨지는 계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커지고, 내가 작아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적용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 선교 후기

멕시코 과달라하라

## 특별한 만남!



꿈과 같았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과달라하라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MOD에서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후 지난 5개월 동안 기대와 부담이 교차했고, 훈련을 받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날 뜨거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기우였음을 알았습니다.



에스파란자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찬양하는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준비한 스킷을 보고 은혜를 나누던 아이들과 성도들, 말씀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산꼭대기 빈민촌에서 드린 셀 모임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신 성도들, 마약에 빠진 아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납치된 손자를 위해 애통하는 할머니,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너무 지쳐

셀 리더를 내려놓으려 했던 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하나

님께서는 그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짧은 선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팀을 세워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긴 모든 팀원들과 현지에서 헌신하시는 허익현·김영중 선교사님 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과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셨음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 모두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과달라하라로 가겠다고... 우리 모두는 그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달라하라의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Eres Especial!' 하나님께 너희는 가장 특별한 존재란다!

김혜정 권사

## 사역 간증

카페

## 커피향에 사랑을 담아요



매주일 새벽, 카페의 수장이신 이장로님을 비롯해 이권사님과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베델 카페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윽한 커피 향으로 시작하는 주일 아침은 저희에게도 큰 행복입니다.

저희 카페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단연 '팀워크'입니다. 사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지만, 작은 카페 안에서는 모두 기꺼이 낮은 자가 되어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 미룰 수도 있는 일도 먼저 하겠다

고 나서고, 자신의 수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팀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매주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카페 봉사가 정말 즐거우신가 봐요. 모두의 미소가 끊이지 않네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웃으며 맞아주시니 저희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 카페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델 카페를 운영하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헌신과 배려의 마음을 주셨고,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성도님들과 서로에게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어느덧 카페 사역을 시작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언젠가 이 사역이 끝나고 사랑하는 카페 팀원들과 작별할 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몽글해집니다.

이 글을 빌려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저희 카페의 형제자매님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순종의 기쁨과 은혜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황장은 권사

소감문  
베델 장학생

#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 〈유영 장학금〉

Thank you so so much for this wonderful news! I am deeply thankful and grateful to be Bethel's scholarship recipient. I was considering taking a gap year because my tuition fee was not fully filled up. But this scholarship was God's clear assurance to continue my studies without worries. I am now able to go back to the US to finish my Junior year. I will never forget the help and support I got from Bethel church and I will pass this love down to the children I will be teaching in the future. Thank you again!

배민주

Thank you for the scholarship and warm encouragement. This gives me so much strength for the road ahead. I am currently preparing for my first medical mission trip to Africa. God has opened this door for me to witness and love His people across the world, praying for and serving them. This scholarship and the encouragement are a massive help toward the needs of the trip. Wherever He guides me next, I will joyfully shine Christ's light. I am deeply grateful to the church family for making this possible, and I will cherish the love and support always. Thank you!

최예담

## 〈야훼 장학금〉

Dear Bethel Church Scholarship Committee and generous dono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us support and prayers. I am deeply honored to receive the Bethel Scholarship. This scholarship will allow me to focus more fully on my studies and leadership development without the constant burden of financial concerns. Instead of worrying about educational expenses, I will be able to dedicate more time to learning, serving, and preparing for the

calling God has placed on my life. Through this opportunity, I hope to deepen both my academic knowledge and spiritual maturity. I want to grow into a Christian leader who serves others with wisdom, humility, and compassion. The encouragement and generosity of Bethel Church remind me that faithful believers can make a lasting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I sincerely thank you for investing in my future. I will strive to honor your kindness by faithfully serving God and sharing His love wherever He leads me.

이서준

## 〈이레 장학금〉

이번 이레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과 베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과 도움을 통해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트리는 사람으로 자라나며 제 삶 속에서 나의 중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제 삶에서 큰 도움이 되고 제 삶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제 삶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경인

## 〈나팔 장학금〉

귀한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UC Irvine에 편입하여 배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앞

으로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문성

## 〈베델 장학금〉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sity and for making this scholarship possible. I am truly grateful for your kindness, your prayers, and your support as I begin this next chapter of my life. Your encouragement means so much to me, and I don't take this blessing for granted. This fall I'll begin studying Biological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UMBC). My goal is to become a Physician Assistant so I can care for and serve others while reflecting God's love through my work. As a missionary kid who grew up in Spain, I've seen firsthand how God works through the generosity of His people. Because of that, your support is especially meaningful to me. This scholarship is more than financial help. It is a reminder of God's faithfulness and the incredible blessing of being part of such a caring church family. Thank you again for your generosity and for the opportunity you've given me. Your support encourages me as I take this next step, and I hope to honor your kindness by working hard, growing in my faith, and using what I learn to serve others wherever God leads me. I am truly thankful for each of you, and I pray that God continues to bless Bethel Church and everyone who made this scholarship possible.

Elizabeth Nam



교회학교  
섬머 챌린지

# From Reward to Kingdom Purpose

'달란트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올여름 유년부 Kingdom Adventure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는 4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교회학교 K-5 각 부서에서는 예배 출석, 큐티와 말씀 암송 등을 통해 모든 포인트를 선물로 바꾸는 Award Store를 매년 두 차례 진행합니다. 이 익숙한 행사를 준비하며 유년부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단순한 보상을 넘어, 말씀을 경험하는 교육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은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으며,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God entrusted something to me. What will I do with it for His Kingdom? 이 질문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More Talents, More Responsibility'를 핵심 원리로 삼아 4주간의 Kingdom Adventure를 구성했습니다. '많이 모으면 더 많이 받는다'는 보상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포인트는 보상에서 경험으로, 경험에서 책임과 섬김으로 아이들이 끄는 교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하는 그 말씀,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는 칭찬을 듣는 Kingdom Ambassador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승진 전도사

Kingdom Adventure has blessed me beyond my expectations. Through this journey, our children began to learn that the gifts and blessings God gives us are not simply for ourselves, but are entrusted to us to serve others and His Kingdom.

Our theme verse, 1 Peter 4:10, reminds us: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Watching our children begin to understand this truth has blessed me deeply. They are learning to ask not 'What can I get?' but 'How can I use what God has given me to bless someone else?'

My prayer is that they will grow into faithful servants who use their gifts to bless others, share the Gospel, and ultimately bring glory to God.

백선정(교사)

Kingdom Adventure was so fun because we did exciting activities each week. Dur-

ing Movie Week, some students made popcorn seasoning to serve others. In Craft Week, we decorated picture frames with charms. During Mission Week, we learned about different countries, prayed for them, and collected stamps at each station. In Celebration Week, we celebrated what we learned and were reminded to use our talents to serve others. Mission Week was my favorite!

I learned that more talents mean more responsibility and that God wants us to use the gifts He has given us to help others and share the Good News. I want to keep helping people in small ways and sharing God's love with them.

Roy Kim(3학년)

여름방학 4주 동안 Kingdom Adventure를 통해 매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친구들에게 팝콘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친구들을 섬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많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가정과 학교에서도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Esther Bae(3학년)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목사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살 위십: 조요셉

##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중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광관: 오춘란

## 사역광고

제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선발 되었습니다. 차세대 크리스천을 위하여 베델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이 모아져 8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 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삶속에서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장학금이 되길 바라며, 그들의 삶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기도 합니다.

## 〈베델 장학생 명단〉

**유영 장학금:** 배민주, 유조은, 최예담

**아훼 장학금:** 이루비, 이서준, 정소영

**이레 장학금:** 남경인, 변은재, 이영훈, 장하린

**나팔 장학금:** 조문성, Ethan Chang

**베델 장학금:** 강예셀, 고은, 고진수, 공도연, 곽세영, 권혁준, 김요셉, 김재희, 김주현, 김혜민, 남예향, 문예슬, 박소율, 박예은, 박은선, 박은재, 박하은, 박환희, 박희원, 방다은, 변준수, 설재인, 손은비, 안정철, 안지우, 여다나, 오승준, 유한빈, 윤지후, 윤택함, 이가람, 이사야, 이송희, 이예림, 이은명, 이은성, 이재진, 이진수, 이하빈, 이한결, 이항기, 임루민, 임주혜, 임지은, 장예성, 장예준, 전인하, 정소영, 정채빈, 조하늘, 주연, 천준우, 최제성, 최제경, 최재영, 최혜은, 홍민기, 홍부희, 황순현, 황준하, 황지민, Ai Giang Phan, Brian Choi, Christopher Hong, Emanuel Park, Glory Lee, Hwany Lee, John Gim, Joyce Lim, Kayley Song, Rachel Kang



## 예배 봉사자

|                          |       |        |        |        |        |
|--------------------------|-------|--------|--------|--------|--------|
| <b>주일예배 대표기도(8,9월)  </b> | 8/23: | ①부-박종민 | ②부-선상균 | ③부-안경수 | ④부-김수빈 |
|                          | 8/30: | ①부-송기평 | ②부-송용훈 | ③부-송석원 | ④부-김지수 |
|                          | 9/6:  | ①부-박세환 | ②부-심진규 | ③부-양승화 | ④부-김진형 |

|                              |           |           |          |           |
|------------------------------|-----------|-----------|----------|-----------|
| <b>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8,9월)  </b> | 8/22: 이상열 | 8/29: 이상훈 | 9/5: 이세웅 | 9/12: 이연택 |
|------------------------------|-----------|-----------|----------|-----------|

|                  |                     |           |           |                    |
|------------------|---------------------|-----------|-----------|--------------------|
| <b>강단꽃(8월)  </b> | 8/16: 윤주원, 조나원, 최하자 | 8/23: 최하자 | 8/30: 이수민 | 9/6: 성홍숙, 오영옥, 최혁성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양재관(응급의학), 간호사-김선미

##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제13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 수여식** 오늘 3부 예배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베델의 후원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에게 큰 격려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 **수요일**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 수요일(19일)은 제3강 '구원자 예수'가 진행됩니다. 수요일 참여행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8월 19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 돌봄: 유아, 유치, K-5학년 대상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베델 제자훈련생 모집** 차별화 된 베델제자훈련을 만나보세요.  
양육반 신청 기간: 8월 23일(주일)까지  
양육반 오리엔테이션: 8월 3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비전채플(한/Eng)  
제자훈련 신청 기간: 8월 23일(주일) 까지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9월 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비전채플(한/Eng)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Rev. James Suh (Eng) (562)447-6947

◆ **BAM 가을학기 훈련생 모집** 베델 BAM 모집 가을학기 훈련 1-3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9일(주일)-23일(주일), 본당 앞 부스나 QR 코드  
훈련 일정: 8월 27일(목)-11월 19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총 13주  
문의: 장지봉 집사 (949)899-7334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 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 포함)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영상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9월 4일(금)-12월 4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 혹은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집사 (714)240-3718, 오경희 전도사 (262)224-7797

◆ **베델 MIT 가을 학기 모집** 베델 MIT 가을 학기 모집을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8월 16일(주일)-30일(주일)  
기간: 9월 4일(금)-11월 20일(금) 12주간  
강좌: 인생의 4계절, 노래교실, 한국서예, 한국화, 서양화, 손뜨개반, 생활한의학, 힐링 피트니스, 손 피아노, 시니어 인지 뇌크리에이션, 스트레칭, 민화  
문의: 김재훈 장로 (714)390-4967

◆ **화요큐티모임 '울림'** 화요큐티모임 울림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한주 동안의 QT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 나눔을 하는 모임입니다. QT에 관심이 있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베델교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고, 소그룹 모임은 매학기 접수 기간 중 신청한 베델 성도(교인번호를 받은)로 이루어집니다.  
첫 예배: 8월 25일(화) 오전 10시, EM채플  
모임기간: 8월 25일-11월 17일까지 13주간  
소그룹 접수: 8월 9일(주일)-23일(주일)까지 3주간 QR 코드 및 접수 부스에서  
문의: 박은혜 권사 (949)910-0327



◆ **교회학교 새학기 PTA(학부모) 모임** 오늘은 교회학교 Promotion Sunday입니다. 지난주 각 부서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오늘부터 새로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배정된 부서의 PTA 모임을 통해 새로운 담당 목회자를 만나고, 새 학기 사역에 대한 안내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PTA 일정과 모임 장소]  
- 소망부: 9월 13일(주일) 2부-3부 사이, 조이채플  
- 영아부: 9월 20일(주일) 예배 중, 영아부실  
- 유아부: 9월 27일(주일) 2부, 3부 각 예배 후, 유아부실  
- 유치부: 9월 20일(주일) 2부, 3부 각 예배 후, 할렐루야채플  
- K-1(킨더가든-1학년): 9월 13일(주일) 오후 1-2시, 임마누엘채플  
- 유년부(2-3학년): 8월 23일(주일) 오후 1-2시, 유년부실  
- 초등부(4-5학년): 9월 20일(주일) 오후 12시 45분-2시, 체육관  
- 영어 중등부(BYM Qara): 8월 23일(주일) 오후 1-2시, 비전채플  
- 영어 고등부(BYM Holos): 9월 20일(주일) 각 2부, 3부 가족 예배로 드림, 비전채플  
- 한어 중고등부(CIM): 9월 27일(주일) 3부 예배 후, 살롬채플

◆ **멕시코 난민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멕시코 일일 선교가 9월 12일(토)에 있습니다. 팀원을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준비 모임: 8월 27일(목), 9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비전채플  
신청: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이길수 장로 (714)328-3350, 이승호 집사 (714)510-1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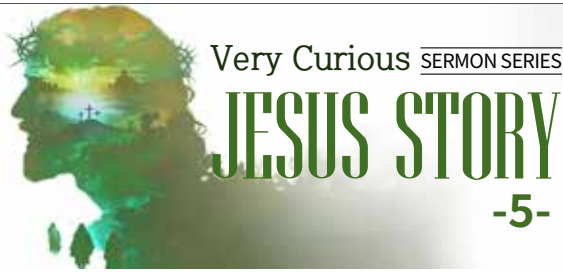


◆ **위로해 주세요**  
故 김기수 권사님(강경혜 집사의 모친, 강영재 집사의 장모)께서 8월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베델뉴스 편집위원                                                                                                                                                                                                          |
|------------------------------------------------------------------------------------------------------------------------------------------------------------------------------------------------------------------------------------------------------------------------------------------------------------------------------------------------------------------------------------------------------------|------------------------------------------------------------------------------------------------------------------------------------------------------------------------------------------------|--------------------------------------------------------------------------------------------------------------------------------------------------------------------------------------------------------------------|
| <p>■ AWANA(어와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p>■ 중,고등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p>■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p> <p>■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p> | <p>■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p> <p>■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p> <p>■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p> <p>■ 예수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p> <p>■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p> | <p>■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p> <p>■ 편집장: 김경자 권사</p> <p>■ 기 자: 강경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p> <p>■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p> <p>■ 번 역: Grace Yi 전도사</p> |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 When the Season of Diminishment Arrives (John 3:22–36)

1. Have you ever faced a bitter situation during a 'season of diminishment', where you thought you were the best but had to step back because someone better appeared? Let us try to understand and share the feelings of John the Baptist's disciples. (V. 25-26)
  
2. The season of diminishment arrives for everyone. We see spiritual maturity in the words John the Baptist spoke to his disciples. Let us also reflect on how we should respond .
  - 1) God's Providence and Sovereignty (Ref: Job 1:21, Gen 50:20)  
A person can receive \_\_\_\_\_ what is given them from heaven. (V. 27)
  
  - 2) The wisdom of knowing one's position and place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said, 'I am not the \_\_\_\_\_ but am sent ahead of him.' (V. 28)
  
  - John the Baptist speaks about a wedding in verse 29. Please explain what this means. (V. 29)
  
  - 3) The wisdom of acknowledging Christ
    - He who comes from heaven is \_\_\_\_\_. (V.31)
  
    -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given all things into \_\_\_\_\_ hand. (V.35)
  
3. The season of diminishment is a season when everything returns to its proper place. It is a season when the center that once asserted as our own is shifted to belong to Christ. "He must become greater; but I must become less" is not a confession of defeat, but, instead, a declaration of freedom . What must we do in order that Christ becomes greater while I become less?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